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가지다’의 준말은 ‘갓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글짓기를 할 때 “친구가 내 책을 빼앗아 **갓었다**.”라고 썼더니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빼앗아 **가졌다**’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갓었다’도 맞는 말 같은데, 왜 틀렸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졌다’만 맞는 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소영, 경남 창원군 도천면)

답 >> 학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갓었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가졌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갓다’와 ‘가지다’는 준말과 본말 관계에 있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형태가 거의 동일한 단어이지만 활용을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갓+고’, ‘갓+-는’의 꼴은 가능하지만, ‘갓+-어’, ‘갓+-은’, ‘갓+-었-’의 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준말인 ‘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만 결합이 가능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는 결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지다’의 준말인 ‘갓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갓었다’는 잘못된 것이고, ‘가졌다’로 쓰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다음에 ‘갓다’와 ‘가지다’의 용례를 더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저 목걸이는 내가 **갖은** 것보다 예쁘지 않다.(×)
- (2) 저 목걸이는 내가 **가진** 것보다 예쁘지 않다.(○)
- (3) 너 이거 **갖어**.(×)
- (4) 너 이거 **가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갖은’이라는 말이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5) **갖은** 양념을 다 넣고 찌개를 끓였다.(○)
- (6) (내가) **가진** 양념을 다 넣고 찌개를 끓였다.(○)

위에서 (5)의 ‘갖은’과 (6)의 ‘가진’은 둘 다 바르게 쓰인 것입니다. (5)의 ‘갖은’은 동사 ‘갖다’의 어간에 어미 ‘-은’이 결합한 말이 아니라, ‘골고루 다 갖추’, ‘여러 가지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관형사입니다. ‘갖은’이 ‘가지다’의 활용형으로 쓰였다면 잘못이겠지만, (5)에서는 그와 다른 의미의 관형사이기 때문에 바른 쓰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갖은’이라는 말은 그 의미에 따라 바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음 >>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한걸음**’이라는 단어가 표제어로 올라와 있는데 “나는 놀라서 **한걸음/한V걸음**(V는 띄어 씀을 나타냄) 물러섰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집까지 **한걸음에/한V걸음에** 뛰었다.”라는 문장에서 ‘한 걸음’을 띄어야 할지 붙여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사전에 표제어로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붙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재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답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놀라서 **한V걸음** 물러섰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집까지 **한걸음**에 뛰었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형태상으로 비슷해 보이는 말에서 띄어쓰기가 다른 이유는 두 단어가 결합해 하나의 단어로 굳은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띄어 쓰기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의 ‘한 걸음’은 수 관형사 ‘한’과 명사 ‘걸음(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횟수를 세는 단위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句)이므로 사이를 띄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쓰인 ‘한걸음’은 주로 ‘한걸음에’ 꼴로 많이 나타나는데, 쉬지 아니하고 내쳐 걷는 걸음이나 움직임을 뜻하는 말로 굳은 합성어이므로 붙여서 써야 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수 관형사 ‘한’이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연결되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몇 가지 예로 들어 본 것입니다.

- (1) **한군데** 「명」 어떤 일정한 곳. 『시선이 한군데로 쏠리다.
☞비교: 휴일이라 약국이 한V군데만 문을 열었다.(날날의 곳을 셀 때는 띄어 쓴다.)
- (2) **한눈** 「명」 ① 한 번 봄. 또는 잠깐 봄. 『그는 내가 학생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다. ② 한꺼번에, 또는 일시에 보는 시야. 『이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비교: 나는 한V눈에만 난시가 있다.(눈의 수를 셀 때는 띄어 쓴다.)
- (3) **한마디** 「명」 짧은 말, 또는 간단한 말.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비교: 나는 단 한V마디도 하지 않았다./그들이 모두 돌아가며 한V마디씩 부르고 나자 운수의 차례라고 줄라 댄다.(말, 글, 노래 따위의 한 도막을 셀 때의 ‘마디’는 띄어 쓴다.)
- (4) **한몫** 「명」 ①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배분. 『한몫씩 챙기다. ② 한 사람이 맡은 역할. 『아들이 있었다면, 지금쯤은 장정의 일 한몫을 해내기도 남았을 것이다.

- ☞비교: 한V뭇으로 둘이 살려면 무척 아껴 써야 한다.(각각의 ‘뭇’을 셀 때는 띄어 쓴다.)
- (5) **한배** 「명」 ① 어미의 한 태(胎)에서 낳. 또는 그런 새끼. 『한배 강아지.』
 ② ‘동복(同腹)’을 속되게 이르는 말. 『한배에서 난 형제.』
 ☞비교: 돼지가 한V배에 새끼 아홉 마리를 낳았다.(짐승이 새끼를 갖거나 알을 까는 횟수를 셀 때는 띄어 쓴다.)
- (6) **한술** 「명」 손가락으로 한 번 뜯 음식이라는 뜻으로, 적은 음식을 이르는 말. 『차린 것은 없지만 같이 한술 뜨세요.』
 ☞비교: 참기름 한V술, 꿀 한V술.(음식을 손가락에 떠 그 분량을 셀 경우에는 띄어 쓴다.)
- (7) **한층** 「부」 일정한 정도에서 한 단계 더. 『날씨가 더워지자 시원한 맥주 생각이 한층 더 간절했다.』
 ☞비교: 한V층 더 올라가면 옥상이다.(층수를 셀 때는 띄어 쓴다.)
- (8) **한판** 「명」 ① 한 번 벌이는 판. 『동네에 한판 큰 잔치를 벌였다.』 ②(운동 전문 용어로) 유도에서, 판정의 하나.
 ☞비교: 씨름 한V판/ 바둑 한V판 둘래?/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이번 한V판에 걸겠다.(승부를 겨루는 일을 셀 때는 띄어 쓴다.)

물음 >>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고 물을 때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와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중 어느 것이 올바른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분이 어쩔 때 음악을 듣니?”라는 문장에서 ‘어쩔 때’와 ‘어떨 때’ 중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답 >> 우선, 질문하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의미에 따라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어떤’은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로, 주로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관형사입니다.

‘어떤’은 다음과 같은 용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가. 그는 어떤 사람이나?

나. 이런 견해에 대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다. 그 여자는 어떤 성격을 지녔습니까?

‘어쩐’은 동사 ‘어쩌다’의 활용형입니다. ‘어쩌다’는 ‘어쩐’의 꼴로 쓰여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어떠한 이유로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2) 가. 어떤 일로 오셨소?

나. 어떤 까닭인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 오늘은 어떤 셈인지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질문하신 문장에서는 ‘일’의 성격이나 내용을 묻는 의미로 관형사 ‘어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이유로 전화하셨습니까?’라는 의미로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라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장에서는 ‘어떨 때’가 맞습니다. ‘어떨 때’는 ‘어떠할 때’가 줄어든 말입니다. ‘어떠하다’는 ‘어떻다’의 본말로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반면, ‘어쩔 때’는 ‘어찌할 때’가 줄어든 말로, 여기서 ‘어찌하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어떨 때’와 ‘어쩔 때’는 둘 다 사용 가능한 표현이지만 하나는 형용사, 다른 하나는 동사의 활용형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가.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때가 좋겠니?

나. 걸을 때와 뛸 때, 어쩔 때가 힘드니?

질문하신 문장은 ‘기분이 어떠하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긴 구

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여야 할 자리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분이 어떨 때 음악을 듣니?”로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물음 >>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보면 ‘아이스크림’, ‘월드컵’(V는 띄어 씀을 나타냄)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각각 ‘아이스크림’, ‘월드컵’으로 나옵니다. 원어가 ‘ice cream’, ‘World cup’인데 ‘아이스 크림/월드 컵’으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월드컵’으로 써야 합니까? 그리고 ‘air conditioner’를 줄여 표기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소윤,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답 >> ‘아이스크림’이나 ‘월드컵’은 원어에서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말에서 합성어로 취급되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이는 국어에서 합성어를 붙여 쓰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외래어의 올바른 띄어쓰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와 합성어로 취급되어 쓰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어로 처리되어 있는 외래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가든파티(garden party), 가스레인지(gas range), 가스보일러(gas boiler), 가스오븐레인지(gas oven range), 골네트(goal net), 골키퍼(goal keeper), 러시아룰렛(Russian roulette), 레드카드(red card), 레디고(ready go),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립크림(lip cream), 마인드맵(mind map), 매직펜(magic pen), 롱스커트(long skirt), 메인타이틀(main title), 메조소프라노(mezzo soprano), 메탄가스(methane gas), 모

카커피(Mocha coffee), 보디랭귀지(body language), 블루진(blue jeans), 비디오테이프(video tape), 비치가운(beach gown), 숄더백(shoulder bag), 스킨케어(skin care), 스텐트맨(stunt man), 스포츠카(sports car), 슬롯머신(slot machine), 시소게임(seesaw game),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 아이스티(ice tea), 콘택트렌즈(contact lens), 콘플레이크(cornflakes), 콜드크림(cold cream), 콜택시(call taxi),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 크림수프(cream soup), 클렌징크림(cleansing cream), 티백(tea bag), 팀플레이(team play), 파운드케이크(pound cake), 패스트푸드(fast food), 팬레터(fan letter), 페어플레이(fair play), 하이패션(high fashion), 핫팬츠(hot pants), 핸드크림(hand cream)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어휘의 띄어쓰기는 교과서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6년 5월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을 위한 교육부와의 업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띄어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현행 어문 규범에 맞게 통일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air conditioner’를 줄여 쓴 표기는 ‘에어컨’과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이를 ‘에어 컨’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합성어 전체가 준말이 된 경우 원어에서 띄어 썼더라도 붙여 써야 합니다.

(2) 메스컴(mass communication), 오토바이(auto bicycle), 오피스텔(office hotel), 리모컨(remote controller)

요컨대, 원어에서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우리말에 들어와 합성어로 쓰이면 붙여 쓰며, 합성어 전체가 준말이 된 경우에도 붙여 써야 합니다. 그리고 외래어의 바른 띄어쓰기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을 참고하실 것을 권합니다.